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2. 5. 12. (목), 14:00~16:2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완도 청산도 계단식 경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3
2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9

심 의 사 항

1. 「완도 청산도 계단식 경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가. 제안사항

「완도 청산도 계단식 경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에 따라,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신청한 <완도 청산도 계단식 경관-취락과 토지 이용의 유기적 연속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신규신청

다.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 결정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잠정목록 등재신청서(안) 주요 내용(*완도군 작성, 세부내용은 발표자료 참조)

- 제시한 유산명칭 : 완도 청산도 계단식 경관-취락과 토지 이용의 유기적 연속체
- 신청유산 내 지정문화재 현황

연번	지정문화재명	지정종별	지정일
1	읍리지석묘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1984.02.29.
2	읍리하마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1984.02.29.

○ 등재기준

- 기준(v) : 하나의(또는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신청유산은 전통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외딴 섬의 취약한 자연 환경에 창의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진화한 계단식 경관의 특출한 사례이다. 수문배미를 포함한 계단식 방독논과 석축, 그리고 계단식 마을과 돌담은 이러한 문화경관의 진화 과정을 대변하는 탁월한 물질적 증거이다.

마. 등재 기준 상세 내용

- 청산도 계단식 경관을 구성하는 속성은 계단식 논(논배미, 석축, 수문, 수구, 수로 등) 및 계단식 마을(가옥, 석축, 석벽, 수문, 수구, 수로 등)이다.
- 청산도는 전체적으로 경사가 가파르고 암편(岩片)으로 뒤덮여 있는 지형·지세의 특성상 토양층이 매우 얇고 물빠짐이 심하기 때문에 토지를 논으로 개간하여 이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도 주민들은 유교적 이념을 공유한 성씨집단(姓氏集團)의 공동 노동력을 동원해 산지의 경사면을 계단식 평지로 다듬어 바닥에 돌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이른바 방독논을 계단식으로 개간하였다.
- 계단식 방독논의 전통적 수리체계는 경작지별로 상이한 미시적 수문조건(水文條件)을 충분히 고려하며 전통적 지식과 기술을 창의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그리고 위 논에서 배수된 물이 충분히 흘러나오는 아래 논의 석축 하단부에 수문을 설치한 방독논을 가리켜 현지 주민들은 특별히 수문배미라고 칭한다. 이는 방독논의 국지적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그 당시의 지식과 기술을 창의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 또한 청산도의 계단식 마을은 방독논과 동일한 원리에 따라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계단식 논과 함께 전체적으로 통일된 계단식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마을의 돌담은 가옥의 경계를 구분짓는 담담인 동시에 계단식 마을의 형태적 특징을 나타내는 독특한 구조물로서 마을을 연속된 하나의 구조물로 인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 결과 청산도는 형태·구조·기능의 측면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진 계단식 마을과 계단식 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해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한편 주변 환경과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앙상블의 예외적 사례이다.

바. 잠정목록 등재추진 경과

- 신규신청

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의견

- 조사일 : 2022. ○. ○.(화)~○. ○.(수)
- 조사자 : ○○○(○○분과 전문위원), ○○○(전 ○○과장), ○○○(○○분과 전문위원)

○ 조사의견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충족 및 등재범위(지역적 범위)

1) 등재신청기준 충족여부

- 신청유산은 청산도에 정착한 사람들이 청산도의 지형지질 특성상 물이 오래 저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생존하고자, 지형에 따라 계단식으로 각 단별로 돌을 세로로 여러 줄을 쌓고 그 위에 구들장을 놓은 후 흙을 쌓음으로서 주거지와 경작지로 만들어 낸, 인간 지혜의 산물임
- 일명 ‘방독논’이라는 지역 특유의 농경생산 양식과 과학적인 수리체계를 특징으로 하며, 마을 형성과 토지 이용 방식이 상호 연계과정을 통해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였음
 - 이러한 구조는 부족한 물의 확보, 저장, 절약, 토양유실 방지 등의 효과를 가져왔음
 - 계단식 경작지는 산지 지형과 등고에 따라, 이동시설(농로), 생산시설(논배미), 관개시설(방죽 - 둑병 - 수문 - 지상수로 - 지하수로 - 수문배미 - 배수로), 구조안전시설(석축)이 기본 요소로 상호 유기성을 갖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들 시설의 유기성이 교란되어 본래의 경관성을 잃어가는 현상이 나타남
- 유산명은 경관에 초점을 맞췄으나, 신청서의 내용은 방독논 또는 구들장논의 수리체계와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음
- 신청유산의 우수성과 독창성이 보다 잘 증명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농업 발전사 등 경관 형성 과정의 역사성과 맥락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2) 완전성 충족여부

- 경관을 구성하는 계단식 논과 계단식 가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석축과 축대는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으나, 수리체계의 핵심 구조인 보, 지하수로, 수구, 수문 등의 일부는 기능이 정지 또는 변화한 상태로 남아 있거나 손실되었음
 - 특히 경작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방독논의 특징인 수리체계의 작동 기능 상실과 수리 구조의 손실로 연결됨
 - 인구의 도시 이주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휴·폐경지가 확대되고 빈집이 증가하였으며, 돌담과 가옥의 지속적인 보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마을과 경작지가 경관적 측면과 함께 기능적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완전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보완 서술이 필요함

3) 진정성 충족여부

- 신청유산은 유기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문화경관으로서 자연환경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구조와 재질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 유산의 원형과 현상을 어느 수준 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유산의 진정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임

4) 등재 범위의 타당성(유산의 구성, 유산구역의 설정 등)

- 신청서에서 유산구역은 1) 당락리·읍리 구역 2) 부흥리·양중리·신흥리·청계리·상동리·동촌리 구역 등 크게 2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음
 - 구역 내의 논들은 △논의 수리 기능이 유지되는 곳 △논의 수리 기능은 정지되었지만 기존 시설이나 경관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곳 △논의 기능과 경관에의 기여가 정지되거나 손실된 곳이 혼재되어 있음
- 유산구역은 제시한 OUV,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하는 핵심 지역으로 선정하고 완충구역은 전체적 경관 보호를 위해 청산도 북쪽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5) 비교연구의 적절성

- 계단식 논이 보여주는 경관은 섬 지역은 물론 내륙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나, 신청서에서는 이러한 보편성과 그 맥락에 대한 언급 없이 남해·지리산·제주도 등과의 단순한 비교 제시에 그치고 있음
 -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보편성에 대한 제시와 함께 탁월함을 설명하기 위한 비교연구가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수리체계와 하부구조에 대한 학술 연구도 보완되어야 하며, 신청유산의 탁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유사한 세계유산과의 비교연구 보완도 필요함

해당 유산의 보존·관리 현황

- 청산도와 주변 해역은 198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압력을 억제해 오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건물의 증축과 신축을 억제하고 있음
- 완도군 군관리계획에서는 용도지구로 설정하여, 규제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3년에는 5ha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1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였고, 2014년에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FAO)에서 주관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으로 등재되었음

- 청산도 계단식 논은 대부분 사유지로, 마을에서 거리가 멀고 높은 위치에 있는 곳일수록 휴·폐경화가 먼저 진행되었으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경작지 가운데 일부는 토지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유채꽃을 심어 관광객 유치에 활용 중임
- 마을 경관에서 시선을 끄는 돌담은 비교적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농가는 건축 당시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슬레이트 지붕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신축한 가옥도 종종 눈에 띄

지자체 및 주민의 의지 및 향후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지역주민 16인으로 구성된 '구들장논 보존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관계가 구축된, 보다 확대된 주민참여기구 구성 필요
- 현재 적용중인 법적 체계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안정적 보존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제도적 장치(명승 지정 등)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다양한 수단으로 관리중인 마을의 경관과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원주민 감소 및 주민 고령화, 외지인 유입 등 정주여건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농경생산 방식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산의 향후 보존관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

기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체계가 이미 마련되거나 가치를 인정받은 구역에 대해서는 인정받은 기준, 구역 등을 하나의 도면에 중첩하여 표현함으로써, 유산 구역의 타당성에 대해 도면에서 효율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유산의 특성상, 세계유산 등재 추진시 주민 중심의 등재추진체(가칭 등재추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슬로우시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 조사했던 자료를 비롯하여 선행연구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것을 권함
 - 문헌조사와 이론적 토대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토착 주민들이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적 지식을 반영하여 실증적 고증을 해야 할 것임

- 대상 유산의 특성을 드러내고 지역 고유 용어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유산의 명칭을 보다 구체적으로(예. 청산도 방독논과 수리체계) 등으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것

아. 소관부서 검토 의견

- 현지 조사 결과, 청산도 방독논과 마을의 경관이 비교적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 또한 잠정목록 신청서의 양식을 비교적 잘 준수하여 서술하였음
- 그러나 신청서를 통해 ① 해당 유산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대변하는 사례로서 특출하다는 사실이 비교연구를 통해 제시되지 않았고 ② 현 시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 체계가 갖춰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신청서에서 주장하는 OUV를 증명하기 위한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설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완도 청산도 계단식 경관-취락과 토지이용의 유기적 연속체」에 대한 세계 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자. 의결사항

- 부결
 - 출석 8명, 부결 8명

2.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가. 제안사항

「대곡천 암각화군(신청명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에서 <대곡천 암각화군(신청 유산명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신청하였음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0조, 11조

제10조(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신청) ① 시·도지사 또는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우선등재 목록 유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하여 줄 것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접수된 국문 등재신청서 초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유산을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7월 3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중 제3항에 따른 평가과정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신청연도 전년 7월 31일까지 최종 등재신청 대상 1건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유산의 후보 지위 유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 말까지 1차 보완사항을 통지하며, 전년 3월말까지 2차 보완사항을 통지한다. 해당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1, 2차 보완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산 심의 경과

- 대곡천 암각화군(신청명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 등재추진 경과

- 2010.1월 : 잠정목록 등재
- 2015.3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부결”
- 2020.2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보류”
- 2021.3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선정”

라. 등재신청후보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등재신청후보 선정 여부 결정
 - 해당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마. 등재신청서 주요 내용(울산광역시 작성)

* 상세 내용은 지자체 설명자료(별도) 참조

1) 유산 설명 (신청서 p.125.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

- 종합요약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창조성으로 빛을 조각이자, 인류 사회발전의 보편적 경향과 신석기 시대 고래사냥 활동이 그림과 문자로 집약된 바위그림이다. 신청유산은 동아시아 대한민국 동남부 연안지역의 반구대 계곡 일대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의례를 위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와 그림과 문자를 새긴 특별한 공간이었다.
 - 6천 년 동안 같은 바위면에 새겨진 시대가 다른 그림과 문자의 조화로운 배치는 세계에서 드문 사례이다. 특히 신석기 시대 그림은 인간의 창조적 예술성이 발현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로, 탁월한 표현기법을 사용해 동물의 종과 생태적 특징이 입체적이고 정교하게 표현된 유례없는 걸작이다.
 - 또한, 신청유산은 수렵·채집·어로사회, 농경사회, 고대국가라는 인류 사회발전의 보편적 경향이 그림과 문자로 남아있는데, 동아시아의 사회문화상과 수천 년간 인간 표현방식의 변화 과정을 집약하여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탁월한 유산이다. 특히, 고래사냥은 신석기 시대 시작된 해양어로문화의 정점으로, 이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인류의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를 통해 고래사냥 활동의 가장 이른 시기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고래사냥의 구체적 실제이자 전 과정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이다.

○ 제시한 등재기준

- (i) :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는 수천 년 동안 같은 바위면에 돌과 금속 도구를 능숙하게 이용하여 구상과 추상그림, 문자를 창의적이고 조화롭게 새긴 암각화로 세계에서 드문 사례이다. 특히, 신석기 시대 암각화는 동물의 종과 생태적 특징이 다양한 각도로 입체적이고 정교하게 표현된 유례없는 걸작이다.

- (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는 인류 사회발전의 보편적 경향이 그림과 문자로 집약되어 남아있는 탁월한 유산이다. 동아시아에서 수렵·채집·어로사회, 농경사회, 고대국가로 발전하면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표현방식이 변화되는 과정과 서로 다른 시대의 사회문화상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특히, 신석기 시대 해양어로문화의 정점인 고래사냥 활동의 구체적 실재이자 전 과정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로,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산 중 하나이다.

○ 완전성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는 6천 년 동안 인간의 창조성이 누적된 걸작이자, 인류 사회발전의 보편적 경향과 신석기 시대의 고래사냥 활동이 그림과 문자로 집약된 탁월한 유산이다. 유산구역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구역의 규모는 수천 년 동안 암각화의 제작전통이 이어진 반구대 계곡이라는 공간의 특별함과 그림의 예술적 가치, 이례적이고 특별한 관습의 증거인 신청유산의 가치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 신청유산의 일부는 환경적 압력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유산의 가치를 보여주는 주요 속성인 암각화와 계곡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등에 따라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 또는 방치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진정성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는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위치와 주변 환경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 신청유산은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연 지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측면에서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신청유산은 처음 조성된 원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충구역 밖의 환경적 압력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일부 변화하였으나 입지, 지형적 특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 보호관리 요건

- 신청유산의 유산구역 전체는 「문화재보호법」, 「수도법」, 「산림보호법」등 관련 법에 따라 개발행위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특히 유산구역에 있는 두 암각화는 각각 국보로, 반구대 계곡 일대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 보존과 정비는 신청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 유지를 위해 전문기관과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산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한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는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유산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나아가 유산에 가해지는 환경적 압력을 항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역민의 인식변화를 기반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산 가치의 논리 확보]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설정 논리 강화

<p>우선 등재 목록 (2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구대 계곡 일대는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하나의 연속된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었기에 산, 하천 등의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여 유산구역의 경계를 설정
<p>등재 신청 후보 (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구대 계곡은 두 암각화의 시·공간적 연속성을 지형적 요소로서 드러내 줄뿐만 아니라, 암각화가 현재까지 보존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구대 계곡 일대의 자연지형적 요소를 경계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

○ 유산이 가진 다양한 가치들의 검토와 정치한 비교연구

<p>우선 등재 목록 (2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유산의 가치 - 등재기준(iii) - 수천 년 동안 신성한 공간에 새겨진 바위그림 - 신석기 시대 해양어로문화의 정점인 포경활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독보적 증거이자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산 · 비교연구 - 세계 바위그림 입지 공간의 보편성(상징적, 신성한 공간에 위치) - (비교대상) 대양의 연안지역에서 포경활동을 표현한 바위그림 (국외-세계유산, 미등재 / 국내) - (비교결과) 신청유산은 신석기 시대 제작되어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산 / 고래사냥 과정 중 탐색의 증거로 최소 7종의 고래 묘사 / 탐색, 사냥, 인양, 해체라는 포경활동의 모든 과정이 확인되는 유일한 유산임을 입증
-------------------------------------	---

<p>등재 신청 후보 (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유산의 가치 - 등재기준(i), (iii) - 암각화가 가진 ‘그림’으로서의 가치인 <u>등재기준(i) 추가</u> - 천전리 암각화의 가치까지 아울러 <u>등재기준(iii)의 가치 확장</u> <p>⇒ 신청유산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창조성으로 빛을 갈작이자, 인류 사회발전의 보편적 경향과 신석기 시대 고래사냥 활동이 그림과 문자로 집약된 바위그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연구 - 바위그림의 세계유산적 가치 평가요소(지리문화적 맥락, 환경, 바위그림 그 자체) - (방법론) <p>기준(i) : 바위그림의 미적 우수성, 희소성, 독창성을 그림의 주제, 표현기법, 구도를 기준으로 유사유산과 비교</p> <p>기준(iii) : 지역의 오랜 제작전통(인간 표현방식의 변화과정)과 특별한 관습(고래사냥)을 유사유산과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대상) 세계유산 바위그림 / 동일한 지리적 문화권 바위그림 (동아시아/대양의 연안지역) - (비교결과) <p>⇒ 기준(i) 충족 : 신청유산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부터 제작집단의 미적 감각을 토대로 창조적 예술성이 발현되어 지난 6천 년 동안 서로 다른 시대의 인간이 가진 천재적 창조성이 누적되어 완성된 걸작임을 보여줌. 이는 동아시아 바위그림의 예술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함</p> <p>⇒ 기준(iii) 충족 : 신청유산은 6천 년 동안 제작되어 동아시아 바위그림의 오랜 제작전통을 증거함. 동아시아에 살았던 인간의 표현방식이 뚜렷하게 변화되는 과정과 서로 다른 시대의 사회문화상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반구대 계곡 내 선택된 바위면에 집약되어 파노라마처럼 남아있는 상당히 이례적인 유산</p> <p>: 신청유산은 태평양 연안을 무대로 한 신석기 시대 해양어로문화의 정점인 고래사냥 활동의 구체적 실제이자 전 과정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산 중 하나임을 입증</p>
-------------------------------------	--

○ 고래사냥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리 확보

우선 등재 목록 (‘21.2.)	· 신청유산의 가치를 ‘신석기 시대 포경활동’에 초점을 맞춰 논리 전개. 포경활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독보적 증거이자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산임을 제시
등재 신청 후보 (‘22.5.)	· 신석기 시대 고래사냥이 가진 위상과 해양어로문화의 정점이 될 수 있었던 배경, 신청유산이 고래사냥의 구체적 실체라는 측면, 인 류의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서술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대책의 구체적 수립]

우선 등재 목록 (‘21.2.)	· 유산구역 명승 지정 추진 · 신청유산의 항구적 보존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사연댐 수문설치 계획 제시) ·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재 신청 후보 (‘22.5.)	· 유산구역 명승 지정(‘21. 5.) · 신청유산의 항구적 보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 추진 (타당성 조사 완료) ·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예정(‘22~’23)

바. 전문가 검토 의견

- 회의일시 : 2022.○.○.(목) 14:00,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검토자 : ○○○(○○○ 연구관), ○○○(○○분과 전문위원), ○○○(○○분과
전문위원)
- 검토의견(요약)

- (등재기준 서술)

- 우선등재목록 선정 이후 등재기준을 (i)과 (iii)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적정
하다고 판단됨. 다만 등재기준 (i)의 경우 신청유산이 세계적으로 (회화적 관
점에서의) 걸작으로 판단된다는 객관적인 제시가 부족하며, 등재기준(iii)의 제
시에서 신석기-청동기-고대국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본 신청유산이 어떠한 시
대문화상을 입증(증거)하는지 정의가 모호함.
- 천전리 암각화와 반구대 암각화를 다소 무리하게 종합함으로써 등재 기준에

따른 가치 서술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두 암면(암각화)가 어떤 속성으로 등재기준에 타당한지는 구분해서 설명하고, 서술문의 도입 또는 맺는 부분에 종합하여 서술할 것을 권함.

- (신청유산의 설명)

- 2.b. i (신청유산의 역사적 맥락)와 2.b. ii(신청유산의 발견 이후 현재까지) 부분은 비교적 적절히 서술되었음. 그러나 신청유산이 연속유산은 아니더라도 두 개의 주요 암면(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산임을 고려하면, 현재의 설명은 종합 기술과 개별 기술 모두에서 두 개의 구성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2.b 역사 및 발전 부분에서 신라 이후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설명은 누락되어 있음. 신청유산이 위치한 지역은 조선시대에도 역사적인 명승으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10세기 이상의 시간 동안 유산의 역사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 ‘암각화 제작은 제작집단의 관념과 염원을 담은 의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동기시대를 제외하면 의례와의 관련성을 신청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바위그림은 토착 원주민집단이 동일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남긴 것들이 많으며 이는 지역의 전통이나 특별한 관습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유산의 경우 제작 시기가 다르고 제작 집단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의례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어떤 집단이 어떤 루트를 통해 계속해서 이 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함
- 바위그림의 장소성에 대한 일반론을 서술하면서 이 장소의 특별함을 강조하였으나, ‘반구대 계곡’의 장소성에 대한 설명은 암면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에 그치고, 반구대 계곡이 의도적으로 선택된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했음
- 유산 명칭은 전 세계인 누구나 쉽게 유산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나 현재 제시한 영문명(Petroglyphs in the Bangudae Valley)은 재고가 필요함. 정식 행정명칭 사용 등 국제적으로 쉽게 (위치)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비교연구)

- 상당한 연구 진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세계유산에 등재된 모든 유산을 주제별로 분석하여 신청유산의 탁월성을 입증하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함. 그러나 이번 신청 내용을 감안할 때 비교연구를 통해 암각화 자체의 분석과 함께 주변 환경에 대한 비교도 필요하며, 등재기준(i)을 입증하기 위한 비교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비교연구의 목적이 ‘신청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고려하면서, 신청유산과 기 등재 유산이 어떤 유사점과 차별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주목하여 서술을 다듬을 필요가 있음

- **(완전성과 진정성)** 완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필요요소가 포함되고 적절한 규모이며 개발이나 방치에 대한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서술되어야 하나 아직 미비함. 대곡천의 두 댐이 유산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향후 수문설치로 인해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충족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또한 고지형과 현 지형이 상이한 상황이 진정성 부분에서 설명되어야 함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설정)**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지도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자연 지형 뿐만 아니라 도로, 댐 등 인공시설물로도 유산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 지도 부분은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보호관리계획)**
 - 우선등재목록 선정시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대책을 조속히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이 요구된 바 있으나,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현 단계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판단됨
 - 대곡댐과 사연댐의 규모, 양식, 수위 변화에 따라 유산에 미치는 영향의 종류, 현황 및 결과가 명확하게 서술되어야만 이를 통해 사연댐 수문 설치가 유산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 제시가 가능함. 또한 유산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소로서 기후변화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설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등재 이후 보존관리계획은 누락되어 있음. 등재된 유산의 관리와 모니터링의 일반지표와 특수지표의 관리 주체는 어디인지, 보존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계획은 무엇인지, 유산의 효과적 해설과 전달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지역사회 또는 유산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어떻게 협력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등, OUV의 요소인 보존관리 부분에 대한 서술이 미진함
 - 등재 이후 건립하고자 하는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센터’를 제시하고자 한다면 건립 위치, 규모, 역할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물리적 규모가 상당한 건물까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도에 위치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며, 향후 세계유산 심사과정(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에서 부정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건물 설치가 등재 추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사. 소관부서 검토 의견

- 등재 신청 기준에 대한 다각도 검토와, 구체적인 비교연구는 긍정적임.
- 다만 등재기준-유산의 설명-비교연구간의 유기적 연결은 부족함

- 현재 신청유산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지정문화재 명칭(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명승 ‘울주 대곡천 일원’)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명칭이 상이하어 유산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78항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산이 완전성 및 진정성의 조건을 갖추고, 해당 유산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유산의 보존관리 계획은 현재 위협요소에 대한 제거 계획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등재 전·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보존 관리 계획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세계유산의 등재 평가 과정에서 보존관리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상적 계획 제시가 아닌 중앙·광역·기초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가 동의하는 현실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보존관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서술 또한 포함되어야 함. 신청유산의 경우 유산의 보존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보존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지역주민, 소관·유관 지자체 등)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의 등재 과정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므로 강조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음
- 우선등재목록 선정 이후 보완내용,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 절차

단계	등재신청후보	등재신청대상	등재신청서(초안)	등재신청서 제출
운영 방식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세계유산센터 제출	세계유산센터 제출
기한	-	제출 전년 7월 31일	제출 전년 9월 30일	제출년 2월 1일

아. 의결사항

- 보류
 - 출석 7명, 보류 7명

[유산 가치의 논리 확보]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설정 논리 강화

<p>우선 등재 목록 ("2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구역 -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하나의 연속된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된 반구대 계곡 일대의 산, 하천 등의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여 경계 설정 - 암각화가 위치한 지점은 공간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첫 번째 능선까지 설정 · 완충구역 -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다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의 첫 번째 능선까지 설정
<p>등재 신청 후보 ("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바위그림과 신청유산이 가진 공간의 보편성 제시 - 바위에 그림을 남기는 행위는 제작집단의 관념과 염원을 담은 의례와 관련된 행위. 이를 통해 그 장소는 신성하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 - 바위그림 제작집단은 다양한 자연환경 중 바위의 위치와 형태, 방위, 하천의 존재 여부, 주변의 시각적·청각적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장소를 '선택'한 것 - 반구대 계곡 일대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수직절벽에 그림을 새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공간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고, 이후 신라 시대까지 암각화가 제작되면서 공간의 특별함이 유지된 것으로 여겨짐 · 신청유산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설정 논리 강화 - 반구대 계곡은 <u>두 암각화의 시·공간적 연속성을 지형적 요소로서 드러내</u> 줄뿐만 아니라, <u>암각화가 현재까지 보존되는 데 중요한 역할</u>을 했기 때문에 <u>반구대 계곡 일대의 자연지형적 요소를 경계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함</u> · 유산구역 - 남쪽과 북쪽은 암각화와 함께 의례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주변 환경을 포함하여 첫 번째 능선까지 설정 - 중앙부는 하천을 따라 형성된 수직절벽이 지형적으로 두 암각화를 연결하고 있어 하천과 절벽면을 기준으로 경계 설정 · 완충구역 -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다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의 다음 첫 번째 능선을 경계로 설정

○ 유산이 가진 다양한 가치들의 검토와 정치한 비교연구

(‘고래사냥 활동에 대한 구체적 논리 확보’ 포함)

<p>우선 등재 목록 (‘2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유산의 가치 - 등재기준(iii) - 수천 년 동안 신성한 공간에 새겨진 바위그림 - 신석기 시대 해양어로문화의 정점인 포경활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독보적 증거이자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산 · 비교연구 - 세계 바위그림 입지 공간의 보편성 : 국내외 바위그림은 일반적으로 상징적, 신성한 공간에 위치 ⇒ 신청유산인 반구대 일대도 수천 년간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음을 증명 - (비교대상) 대양의 연안지역에서 포경활동을 표현한 바위그림 (국외-세계유산 3곳, 미등재 8곳 / 국내 21곳) - (비교결과) 신청유산은 신석기 시대 제작되어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산 / 고래사냥 과정 중 탐색의 증거로 최소 7종의 고래 묘사 / 탐색,사냥,인양,해체라는 포경활동의 모든 과정이 확인되는 유일한 유산임을 입증
<p>등재 신청 후보 (‘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유산의 가치 - 등재기준(i), (iii) - 암각화가 가진 ‘그림’으로서의 가치인 등재기준(i) 추가 - 천전리 암각화의 가치까지 아울러 등재기준(iii)의 가치 확장 ⇒ 신청유산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창조성으로 빛을 갈작이자, 인류 사회 발전의 보편적 경향과 신석기 시대 고래사냥 활동이 그림과 문자로 집약된 바위그림 · 비교연구 - 바위그림의 세계유산적 가치 평가요소(지리문화적 맥락, 환경, 바위그림 그 자체) - (방법론) : (바위그림의 미적 우수성, 희소성, 독창성) 그림의 측면에서 접근해 바위그림의 ‘주제’, ‘표현기법’, ‘구도’를 기준으로 유사유산과 비교 : (지역의 오랜 제작전통) 인류 사회발전의 단계에 따라 인간 표현방식의 변화과정과 당시 사회문화상의 증거를 유사유산과 비교 : (지역의 특별한 관습) 선사 시대 해양어로문화의 정점인 고래사냥 활동을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를 유사유산과 비교 - (비교대상) 세계유산 바위그림 / 동일한 지리적 문화권 바위그림 (동아시아/대양의 연안지역)

- (비교결과)

① 바위그림의 미적 우수성, 희소성, 독창성

: (주제) 신청유산의 대표 그림 주제인 동물그림, 특히 '고래' 그림은 바위그림의 주제에서 상당히 희소한 주제임을 확인. 이는 고래의 회유경로인 대양의 연안지역 중에서도 지금까지 사례가 없는 태평양 북서부 연안지역의 독보적인 사례

: (표현기법) 사실적 정교함, 자연암면의 굴곡 활용, 얇은 돌을새김, 애니메이션, 다시점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것은 세계에서 드문 사례임을 확인

: (구도) 6천 년 동안 같은 바위면에 서로 다른 시대를 나타내는 구상그림과 추상그림, 문자가 조화롭게 배치된 사례는 이례적임을 확인

⇒ (기준(i) 충족) 신청유산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부터 제작집단의 미적 감각을 토대로 창조적 예술성이 발현되어 지난 6천 년 동안 서로 다른 시대의 인간이 가진 천재적 창조성이 누적되어 완성된 걸작임을 보여줌. 이는 동아시아 바위그림의 예술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함

② 지역의 오랜 제작전통을 증거

: 인류 사회발전의 보편적 경향은 특정 시기에 제작된 고고학 물질자료 보다 수백 혹은 수천 년 동안 제작된 바위그림을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음

: 바위그림은 긴 시간동안 제작되면서 해당 지역의 오랜 제작전통을 반영하고, 변화되는 사회문화상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를 나타내는 그림의 중첩을 통해 각 시대의 선후 관계도 알 수 있음

: 인류 사회발전의 단계에 따라 인간 표현방식 변화 과정의 비교 결과,
→ 표현방식이 변화하지 않거나, 다양한 표현방식이 확인되어도 그림이 중첩되지 않아 선후관계를 알 수 없음/문자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사회상 파악 불가

: 서로 다른 시대의 사회문화상 요소 밀집도 비교 결과,
→ 구상그림, 추상그림, 문자가 모두 하나의 공간이나 바위면에 집약되어 보여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

⇒ (기준(iii) 충족) 신청유산의 선택된 바위면에 새겨진 그림과 문자는 서기전 5천 년부터 서기 10세기까지 6천 년 동안 제작되어 지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바위그림의 오랜 제작전통을 증거함

⇒ 인류 사회가 발전하면서 동아시아에 살았던 인간의 표현방식이 뚜렷하게 변화되는 과정과 서로 다른 시대의 사회문화상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반구대 계곡 내 선택된 바위면에 집약되어 파노라마처럼 남아있는 상당히 이례적인 유산

③ 지역의 특별한 관습을 증거

<고래사냥 활동의 인류사적 가치>

: 선사 시대 인류에게 대형동물 사냥은 공동체를 유지, 결속하는 중요한 행위
→ 인류 사회발전에 중요한 계기

: 고래는 연안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바다동물로 신석기 시대부터 고래를 사냥하고 자원으로 활용(식량, 옷, 연료, 도구 등)

: 고래사냥의 성공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정보와 전문화된 기술이 집약되어야 가능. 신석기 시대 시작된 고래사냥 활동은 여러 어로활동 중에서도 이러한 정보,기술의 집약이 필요하여 해양어로문화의 정점을 보여줌. 이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인류의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함

<고래사냥 활동의 물리적 증거>

: 고래사냥은 복합적 정보와 전문화된 기술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서만 특별한 관습으로 이어져 왔을 것

: 고고학 자료(고래 뼈, 어로 도구, 배 등)는 당시 사회상을 단편적으로 전달하나, 바위그림은 한 장의 사진처럼 사실적,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최적의 물리적 증거

<비교결과>

: 해양어로문화가 발달했던 대양의 연안지역에 있는 고래 그림과 고래사냥 활동이 표현된 바위그림 비교 결과(태평양 연안 4곳/북극해 연안 6곳),

→ 비교유산에는 고래사냥의 일부 과정만이 묘사되어 있으나, 탐색, 사냥, 인양, 해체라는 고래사냥의 전 과정이 표현된 바위그림은 신청유산이 유일함을 입증

→ 신청유산의 신석기 시대 고래사냥 그림은 당시 사람들이 고래를 중요 자원으로 활용했고, 공동체의 협업과 사냥 성공 이후 고래를 공평하게 분배하여 공동체의 유지와 결속을 위한 중요한 행위였음을 한 장의 사진처럼 보여주는 구체적 실제이자 증거

→ 신청유산은 서기전 5천 년경 신석기 시대부터 제작된 바위그림으로, 북극해 연안의 고래사냥 바위그림과 유사한 시기이자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

⇒ (기준(iii) 충족) 신청유산은 태평양 연안을 무대로 한 신석기 시대 해양어로문화의 정점인 고래사냥 활동의 구체적 실제이자 전 과정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산 중 하나임을 입증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대책의 구체적 수립]

<p>우선 등재 목록 ("2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구역 명승 지정 추진 - 우선등재목록 선정 심의 당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검토중 · 신청유산의 항구적 보존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 사연댐 여수로에 수문 설치 계획 제시, 수문설치 타당성 용역 추진 ·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 '우선등재목록' 시 <부록>으로 제출
<p>등재 신청 후보 ("2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구역 전체를 '명승'으로 지정("21. 5.) - 신청유산의 유산구역 전체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인 '울주 반구천 일원'에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관리를 받고 있음 - 명승구역의 사유지는 '22년부터 총사업비 약 20억 원을 편성해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을 추진중 · 환경적 압력 해소를 통한 항구적 보존환경 조성 - (현 상황) 사연댐 저수구역 내 위치한 대곡리 암각화의 높이가 댐의 상시만수위보다 낮아 잦은 침수 발생. '14년부터 암각화 침수방지를 위해 사연댐 수위를 낮게 유지(52m 이하)하여 침수기간은 크게 감소(연평균 침수일 151→42일). 집중호우 시에만 약 1~2개월 정도 침수. 암각화 보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환경적 압력 해소방안 ⇒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 : (타당성 검토) 울산광역시 대곡리 암각화가 침수되지 않는 항구적인 보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연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하는 타당성 용역 추진("21.5.~'22.3.) → 용역결과, 사연댐 여수로 47m 지점에 수문 3개 설치 안이 최종 제안됨 : 이후, 용역 결과는 환경부로 이관되어 사업적정성 심사(기획재정부) 검토중 ("22년 상반기 완료)이며, 사업 시행 및 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 : (운영) 사연댐 유입량 증가시에는 전체 수문을 개방해 수위를 낮추어 대곡리 암각화의 침수를 예방 : (효과) 댐 수위조절을 통해 대곡리 암각화의 침수영향이 없는 자연하천과 동일 상태로 유지가 되어 신청유산 일대 항구적 보존 환경 조성 가능 ※ 수위조절 전('05~'13년 : 151일) → 수위조절 후 ('14~'20년 : 42일) → 수문설치 후 (0.8시간) : (향후계획) 수문설치 기본계획("22) → 기본 및 실시설계(~'23) → 공사 준공("25) · 신청유산의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예정 - 사연댐 수문 설치를 통한 신청유산의 항구적 보존 환경 조성을 전제로, 구체적 실행방안이 포함된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 종합보존관리계획」을 수립 예정("22~'23년) -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완전성, 진정성을 보호관리 및 유지하고자 함 · 그 외 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계획은 등재신청서 169p 참조(표5-11)